

‘추행하는 사회’ 성범죄 무감각

광주 올 성추행 184건 190명 검거… 작년보다 28% 증가

남성들 의식 부족 탓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그릇된 성 인식으로 인해 성추행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추행 대상도 부녀자들에서 아동,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히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모두 472건으로 51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유형별로는 성폭행 288건에 318명,

성추행 184건에 19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성폭행 300건에 343명, 성추행 143건에 154명에 비해 성폭행은 줄어든 반면, 성추행은 무려 28%(41건) 가량 급증했다.

하지만, 성폭행과 성추행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돼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발생 건수는 더욱 많다는 주장이다.

예전은 밀한 곳에서 이뤄지던 추행이 최근에는 술집, 클럽, 펍, 버스, 심지어는 직장 내에서도 발생하는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대상도 아동, 장애인 등으로 확대되는 등 불특정 다수가 성추행의 표적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은 대한민국 남성들의 잘못된 여성관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한다. 대한민국 남성들의 뇌리에 뿐만 아니라 ‘여자는 무조건 남성에게 복종해야 하고, 여자는 남자들의 사랑을 다 받아줘야 한다’는 가치관 속에 여성의 일종의 도구로 보는 잘못된 사회풍토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경우는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

해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을 악용하는 것도 성추행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조망 개정의 목소리도 높다.

애매한 법적 기준도 문제다. 이로 인한 직장 내, 연인 사이에서도 성추행과 관련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행은 가해자가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하게 된다”며 “동의없이 팔과 손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추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지법, 친구 여친 성폭행 살해 30대에 징역 20년

광주지법, 친구 여친 성폭행 살해 30대에

광주지법 형사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6일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3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성폭행하고 이를 감추려고 살인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하고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죄성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8월3일 새벽 2시35분

께 완도군 완도읍 한 술집에서 휴가차 방문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동석했던 친구의 여자친구를 상가 건물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 가운데 6명은 징역 20년, 나머지 1명은 징역 15년 의견을 제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내 자식한테 누가 …”

학부모 학교서 자해 소동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학부모가 학생지도를 문제삼으며 자해 소동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광주 모 초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께 이 학교 교무실에서 학부모 A씨가 딸을 지도하는 교사를 찾으며 소동을 벌였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교사와 승강 이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질 듯 위협했으며 일부 깊은 교사도 격분해 상의를 벗어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투명 테이프의 절단 부로 이마를 긁어 피를 흘리는 등 10여분 간 협약한 분위기로 연출돼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딸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로 알려졌다. 학교측에 따르면 6학년인 A씨의 딸은 같은 동아리 소속 5학년 후배들이 문제가 있다며 5학년 담임교사에게 하소연했으나 뒤에 태도가 불순하다는 구지밥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딸이 울면서 전화로 이런 내용을 하소연하자 교무실로 찾아가 때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책상 위 물건을 들다가 이마가 깨쳤을 뿐 자해를 하지 않았는데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의 한 관계자는 “사소한 오해 때문에 빚어진 일로 사태가 원만히 해결돼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C&그룹 전 부회장 실형

C&그룹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임갑표(73) 전 C&그룹 수석 부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받아 다시 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회삿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임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서점서 치맛속 칠착 20대 덜미

○…최신 스마트 폰을 이용해 서점에서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활영한 20대 휴학생이 경찰서행.

○…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지역 모 대학 휴학생인 강모(24)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15분께 광주시 서구 한 서점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윤모(여·27)씨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했다.

○…강씨는 스마트폰을 들고 피해자의 주위를 맴도는 강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서점 직원의 신고로 불찰렸으며 경찰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실수를 했다. 동영상은 이미 삭제했다”고 진술.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시민건강걷기대회

‘제3회 시민건강걷기대회’가 6일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 일원에서 열렸다. 민족통일광주광역시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오색 풍선을 들고 출발선을 지나고 있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54회 차량 턴 5명 구속

장흥경찰은 6일 훔친 차량을 타고 다니며 전문적인 수법으로 차량 내 물건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유모(18)군 등 10대 3명을 포함한 5명을 구속했다.

유군 등은 지난 31일 새벽 2시께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장흥교도소 앞 도로에 주차된 EF쏘나타에서 시가 4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훔치는 등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광주, 목포, 해남, 정읍 등지에서 총 54회에 걸쳐 6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취재부=김용기자 kykim@

“웨딩, 객실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의
대한민 행사”
광주 최대의 5000평의 초대형주차장을
오직 호텔 예술의 전당 뿐입니다!
뷔페식비는 대형예식장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기울뷔페는 총 100여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통합식과 즉석김치로 모십니다.
하객 400인 이상 보증시 원복침대 및 협탁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성수기 혼잡한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있는 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362-0011, 600-9999

새롭게 준비한 기울웨딩
총 100가지 뷔페

객실 500,000원 및
조식뷔페(30종) 무료제공

각종연회행사 할인!
(돌잔치, 회갑연, 송연모임, 기업행사)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신청 접수

사업내용

태양전지를 설치하여 생산된 전력을 SMP가격과 인증가격을 합산한 가격으로 전력거래소 및 RPS기관에 판매하는 발전 시스템

인증서 판매가격 : 입찰을 통하여 결정

- ▶ 신청대상 : 건물옥상 및 공장지붕,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를 소유한자
- ▶ 수 의 성 : 건설 투자비 회수는 약 8~9년, 수익은 건설비용의 약 2배 창출
- ▶ 건설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의 기간 소요(사업허가~준공까지)



어떠한 궁금점이라도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062-268-5118 017-310-4119
010-9435-0441

내일 전기는 내가 직접 만들어 쓴다!

누진세 해방 및 전기료 80% 절감효과

설치효과 월 평균 92,490 원 절감

설치전 월 평균 470kwh 사용으로 요금 105,110원

설치후 월 평균 140kwh 사용으로 요금 12,370원

설치장소 : 주택, 상가, 마을회관, 공장 등

JW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친환경 기업
정우엔지니어링
www.jwsolar.co.kr